

# ‘첫 출격’ 이강인 “내가 팀에 맞춰야...제일 중요한건 팀 성적”

‘첫 출격’ 이강인, 선발로 나서 36분만 소화

황선홍호, 내일 키르기스스탄과 16강 격돌

남자축구 아시안게임 3연패 도전의 열쇠가 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팀’을 수차례 강조하며 금메달 사냥을 예고했다. 이강인은 24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전반 36분만 소화했다. 소속팀 PSG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뒤늦게 합류한 이강인은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대의 집중적인 압박에는 다소 고전하는 장면도 나왔다. 한국은 앞서 조 1위, 16강 진출을 확정할 만큼 최종전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다. 3-0으로 승리해 3전 전승으로 조별리그를 마쳤지만 황선홍 감독의 시선은 결과보다 이강인의 적응, 동료와의 조지력, 경기 감각에 쏠렸다. 경기 후, 이강인은 믹스트존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미있는 경기였던 것 같다. 동료들과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할 점도 많은 것 같다”며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짧았던 출전 시간에 대해서 “경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진 않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 경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를 뛰면 필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 다른 선수들도 매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었다. 재활을 거쳐 지난 20일 도르트문트(독일)와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복귀했다. 교체로 17분만 소화해 정상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파리, 인천, 항저우를 거쳐 진화로 긴 여정을 밟아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이강인은 몸 상태에 대해 “부상은 잘 회복됐다.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면서 “(선행)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다고 해도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팀 성적이다.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이강인의 기량을 누구보다 인정하는 황 감독은 바레인전을 마치고 “모든 걸 말하기 무리가 있지만 이강인은 틀보다 좀 더 프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많이 뛰는 포지션도 고민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틀에 가두는 방식 대신 이강인의 실력과 기량을 믿고 좀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 었보였다. 그러나 이강인은 자신보다 팀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뛰는 건 중요하지 않다. 최대한 팀에 맞춰야 하고,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팀에 도움을 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인은 5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렐방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흥민(토트넘)을 연상하게 한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며 전력의 핵심으로 뒤편에 합류한 ‘마지막 퍼즐’이다. 아시안게임 3연패 도전에 있어 절대적인 존재다.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이강인은 특유의 무뎌진 표정과 함께 “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선수들이 한 팀으로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다. 목표까지 가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경기장까지 찾아



24일(현지시간) 중국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최종전 E조 대한민국 대 바레인 경기, 한국 선발 이강인이 입장하고 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결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6강 상대는 F조 2위 키르기스스탄이다. 오는 27일 오후 8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뉴스

## 최형우, 좌측 쇄골 분쇄골절로 수술...KIA 타이거즈 ‘비상’

오늘 수술 예정...재활까지 약 4개월 소요



KIA 타이거즈의 간판타자 최형우(40)가 수술대에 오른다. KIA는 25일 “최형우가 추가 검진 없이 26일 구단 지정병원인 광주 선한병원에서 쇄골 고정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단명은 좌측 쇄골 분쇄골절 및 견쇄관절 손상이다. 재활까지 약 4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최형우는 지난 24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주루 도중 KT 1루수 박병호와 충돌해 크게 다쳤다.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KIA는 7월부터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는 최형우를 잃어 큰 충격에 빠졌다. KIA(61승 2무 61패)는 5위 SSG 랜더스(64승 2무 62패)에 1경기 차로 뒤진 6위를 달리고 있다. 최형우는 올해 1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2에 17홈런 81타점 64득점을 기록했다.



## 손케 듀오 잇게 한 손메 듀오...찰떡궁합 자랑

제임스 매디슨, 손흥민 2골 모두 어시스트 47골 합작 케인 이적 후 빈자리 메울 전망

단짝 해리 케인(바이에른뮌헨)과 헤어진 손흥민(토트넘)이 새 동료 제임스 매디슨과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주장 완장을 차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이날 2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에서 구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다양한 기록을 수립했다. 이날 2골로 손흥민은 올 시즌 EPL 6경기에서 5골째를 넣어 8골을 넣은 맨체스터시티 엘링 홀란에 이어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8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폴 스콜스(107골), 대런 벤틀(106골)를 제치고 피터 크라우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아스널 킬러로 등극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개인 통산 19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 또 손흥민은 1993년 5월 존 헨드리 이후 처음으로 아스널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은 토트넘 선수가 됐다.

이날 2골로 손흥민은 유럽 진출 이후 통산 199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이번 2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통산 150호골에 도달했다. 이날 2골 모두 매디슨이 도왔다. 매디슨은 0-1로 뒤진 전반 41분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골라인 부근에서 손흥민에게 킥백 패스를 내줬다. 손흥민은 달려들며 방향만 바꾸며 골을 성공시켰다. 매디슨은 1-2로 뒤진 후반 10분 상대 수비로부터 골을 뺏은 뒤 손흥민에게 정확한 침투 패스를 넣었다. 손흥민은 반대편 골포스트 쪽으로 가는 간절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이날 활약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을 연상시켰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47골을 합작하며 찰떡 콤비로 활약했다.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은 물론 토트넘의 공격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매디슨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매디슨은 손흥민 도우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손흥민도 이날 경기 후 매디슨을 칭찬하며 향후 호흡을 기대하게 했다. 손흥민은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다”며 “특히 매디슨은 용맹을 발휘했다”고 평했다. 뉴스

## 상대에 분석 당한 탁구

신유빈 “문제점 보완할 것”

탁구 기대주 신유빈(대한항공)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준결승전 패배 후 상대에게 분석을 당한 것 같으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남은 단식과 복식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유빈은 25일(한국시간) 중국 항저우 궁수 커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11매치와 4매치에서 일본 선수에 졌다. 신유빈의 패전 속에 한국은 일본에 매치 스코어 1-3으로 패했다. 매치 스코어 1-2로 뒤진 상황에서 4매치 주자로 재등장한 신유빈은 히라노 미우에 1-3(11-13 11-7 10-12 9-11)로 졌다. 이로써 한국은 단체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신유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에게 간파 당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저랑 경기하는 선수들이 저한테 계속 거의 비슷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올해 들어 국제 대회에 다수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고 이에 따라 여자 단식 세계랭킹을 8위까지 올렸다. 이 과정에서 신유빈을 견제하는 선수와 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상대가 신유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유빈은 패인 분석 후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순간순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며 “속소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경기를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안세영 “항저우서 최고 모습”...韓배드민턴, 金4개 겨냥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이 25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안세영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항저우로 떠나기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인터뷰에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다”며 “이번에는 좋은 흐름을 갖고 항저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에 등극한 안세영은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첫 경기였던 32강전에서 천우페이(중국)에게 조기 탈락했다. 와신상담한 안세영은 올해 들어 만개한 기량을 과시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 안세영은

세계선수권과 전영오픈을 비롯해 올해만 9차례 우승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이 출전하는 여자 단식 외에 남녀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인천공항에서 선수단 분위기가 좋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준비를 해 와서 현재 선수들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금메달 획득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 혼합 복식, 여자 복식 종목들이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로써 우리 배드민턴이 국위를 선양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충격의 양키스, 7년 만에 포스트시즌 탈락

뉴욕 양키스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양키스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1-7로 완패를 당했다. 시즌 78승 77패를 기록한 양키스는 포스트시즌 진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양키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양키스는 올해 투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애런 저지는 부상으로 약 2개월간 전역에서 이탈했다. 팀 타율은 0.226으로

아메리칸리그 15개 구단 중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총 득점은 647점으로 리그 11위에 자리했다. 선발진에서는 에이스 게리 콜(14승)을 제외하면 10승 투수는 아무도 없다. 저지는 “올해 우리 팀은 여러 가지가 잘 안됐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메이저리그로 승격해 매년 포스트시즌에 출전했다. 올해는 다르다. 내년을 준비할 시간이 평소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를 달리고 있는 양키스는 최하위 추락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